특수화학 시장 성장률 급격히 하락!

"Go-Go" 성장에서 "Ho-Hum" 추세 … 인수·특주사업 육성이 방안

특수화학기업들의 장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거시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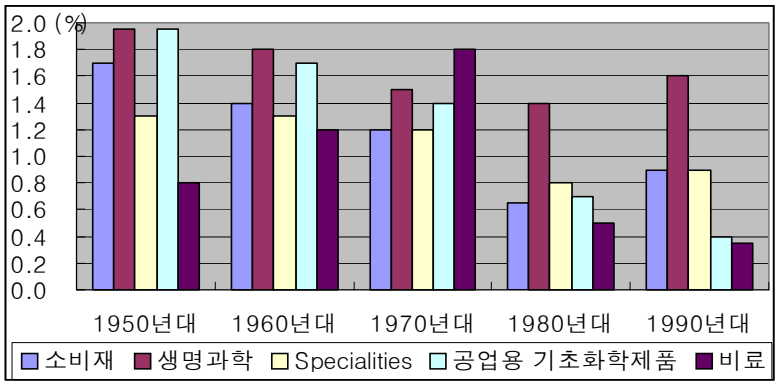
미국의 경기성장률은 1950년대의 고성장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하락해 왔는데 특수화학의 성장률도 동반 하락했다. 특수화학의 주요 수요처인 제조업은 미국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는데 서비스 및 관리(Government) 부문의 성장률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

특수화학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 이하로 둔화돼 왔다. 특수화학 산업이 활발한 "Go-Go" 성장에서 따분한 "Ho-Hum" 추세로 변한 것이다. 성장률의 하락세는 또한 재고량의 감소로 더욱 악화됐다.

전후 몇년 동안 전통적인 유도품 시장의 성장률이 속력을 늦췄고 화학산업의 성장률도 크게 하락해 전통분야의 수익 및 투자역량이 덩달아 감소했다. 또 세계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특히 아시아가 제조방법 및 품질을 개선함에 따라 미국의 특수화학기업들은 GDP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했다.

산업 전반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재, Photonic 소재 및 생명과학소재와 같은 특정 분야는 건실한 성장을 기록했다. 특수화학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밑돌았던 반면 생명과학소재의 성장률은 1950년대 이후 10년 주기 GDP 성장률을 초과했다.

특수화학 시장의 성장률 추이



자료) American Chemistry Council

특수화학기업들은 1990년대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더 큰 고충을 겪었다. 수요기업들의 통합 및 세계화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종종 공급기업을 자체 수반하거나 교체하기를 원했다. 북미 수요기업들로 공급을 하지 않거나 못했던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했다.

수요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및 조직형성 기술과 같은 연초점식 가치가 사라진 대신 정기운반 및 품질측정과 같은 실질적 통계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수요기업들은 또한 현지의 매출, 서비스 및 소비자 조직과 같은 공급체인을 관리했고 의사결정을 현지 플랜트에서 기업본부로 이전했다.

여러 요인들은 특수화학기업의 가격 및 마진을 압박했는데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변화로 특수화학 사업의 특질을 유지하는 일이 20년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Chemical Journal 2003/12/15>